

# 최초의 한글 PC

김 종 열  
한국IBM 이사

80년대 초반, 우리나라 최초의 PC라고 할 수 있는 IBM5550을 개발할 당시의 경험을 소개할까 합니다.

당시 IBM5550은 본격적인 의미의 PC라기 보다는 업무용 컴퓨터라고 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 메인프레임의 터미널 용도로 사용되었고 일부 사내 부서에서 기획 및 문서작성용으로 워드프로세서와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사용하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IBM5550의 출현은 당시 전산업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중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접할 수 있었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완성된 형태의 한글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특히 완벽한 한글의 출력이 가능해 졌다는 것이었습니다.

IBM5550을 개발하기 위하여 당시 사업성과 사용자 입장의 편의성등 많은 기술외적인 검토가 있었으나 기술적으로는 한글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글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중에서 한글글꼴을 개발했던 경험은 매우 특이하여 소개할까 합니다.

그때까지 한글 출력기능은 2벌씩 또는 3벌씩이라하여 초중성을 윗줄에 그리고 중성을 아랫줄에 출력하는 지금보면 매우 기이한 형태의 방식이었습니다. IBM5550의 출현과 더불어 24×24와 32×32 Dot Matrix로 된 고해상도 모니터와 인쇄기에 출력이 가능했기 때문에 미려하고 완벽한 한글의 출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제는, 어떻게 미려한 글꼴을 디자인하여 Dot Matrix패턴에 맞게 입력시킬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에는 크게 명조체와 고딕체로 대별되는 다양한 글꼴이 있었지만 전체 11000여자 또는 실제사용되는 3000여자의 완성형 글꼴을 Dot Matrix에 맞추어 처음부터 새로 디자인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나중에 IBM은 독자적인 글꼴들을 많이 개발하고 각 글자들의 모양을 더욱 미려하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친근감이 있는 활자매체 글꼴을 사용하기로 하고 여러가지 글꼴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고딕체와 명조체 한벌씩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봉착한 문제는 선정된 글꼴을 어떻게 Dot Matrix형태에 맞추어 입력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글꼴

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Dot Matrix로 디자인하기 위하여 우선 반투명셀로판지에 Dot수에 맞추어 일정한 크기로 확대를 한 디자인 양식을 인쇄하였습니다. 그러나 활자 매체의 글꼴을 인쇄된 양식에 맞는 일정한 크기로 확대하는 것이 그 다음 봉착한 문제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슬라이드 확대기도 사용해 보고 당시 사내에서 기술자료 검색장비인 Microfiche장비로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 효율이나 생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쇄소에 들러 사진식자 기술을 활용하여 선정된 글꼴들을 일정한 비율로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선정된 글자들을 사진식자기술로 일정비율로 확대해서 필름에 그 본을 뜬 후 그 필름위에 반투명 셀로판 디자인양식을 투과하여 디자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그 생산성이 매우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만들어진 글꼴은 글자의 크기에 관계없이 활자매체와 동일한 수준의 미려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글꼴만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회사가 있어서 그 디자인 방법도 많은 발전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지금도 당시 사용했던 방법이 여러경우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